마태오 복음서 3장

세례자 요한의 설교(마르 1,1-8; 루카 3,1-9.15-18; 요한 1,19-28)

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1) “그 무렵에”는 앞서 서술된 사건과 시간상 직접 관계가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인다.[1)]
2) 마태오가 말하는 광야는 지리적인 정확성이 아니라, 성서에 따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야’는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3) ‘선포하다’는 본디 ‘사자가 임금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예언자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되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가리키고 있다.[2)]

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1) ‘회개하다’는 본디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곧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주신 하느님께 무조건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3)]
2) “하느님”을 직접 말하기를 삼가는 유다인들의 관습에 따라, “하느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이 ”나라“가 천상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께서(5,48; 6,9; 7,21)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장소의 뜻도 있지만, ’통치, 지배‘의 뜻도 있다.[4)]
3)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먼저 바로 곁에까지 와 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말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완전히 실현되었다든가, 또는 예수님의 인격체와 활동 속에 은밀하게 시작되었지만 즉시 모든 이에게 드러나리라는 뜻으로 이해된다.[5)]
4) 신앙생활은 본질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회개의 생활이다.

3.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3쪽, 각주 1.
2) 위, 64쪽, 각주 3 참조.
3) 위, 각주 4 참조.
4) 위, 각주 5.
5) 위, 각주 6 참조.

4.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1) 요한의 의복은 전형적인 예언자(즈카 13,4), 특히 엘리야의 복장을 닮았다(2열왕 1,8).[6)]
2) 낙타털로 된 옷과 가죽띠 그리고 메뚜기와 들 꿀은 검소함을 나타낸다. 세례자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 생활을 택하였다. 회개를 위치는 하느님의 종다운 생활이다.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1) '고백하다'는 죄를 자백함을 뜻한다. 당시의 유다교에서는 특별한 기회에 죄를 고백하였다. 예컨대 속죄일의 의식 중에(레위 5,5-6; 26,40; 2역대 6,37; 느헤 1,6; 다니 9,20 참조), 또는 계약 갱신례 중에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졌다. 죄의 고백은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느님께 돌아감을 나타낸다(시편 32,5; 잠언 28,13; 루카 18,13-18; 야고 4,16; 1요한 1,9 참조).[7)]
2) 이 "세례"는 요한이 모든 이에게 단 한 번만 주었기 때문에,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이 매일 거행하는 침수(沈水) 의식, 곧 정결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유다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유다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정화해 주는' 의미의 세례와도 같지 않다. 요한은 백서의 회개를 촉진해, 결국 예수님께서 주실 세례를 준비시킨다.[8)]
3) 우리가 고해성사 중에 죄를 고백함은,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그분께 돌아감을 의미한다.

7.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9)]

---

6) 위, 각주 9.
7)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58쪽 각주 11.
8) 앞, 64~65쪽, 각주 11.
9) 루카 21,23 :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 1,18 :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페 5,6 :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콜로 3,6 :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1) 복음서에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함께 등장하거나, 바리사이들이 율법학자들과 등장한다. 또는 그저 군중이라고만 하기도 한다. 이는 복음서 저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10]
2) '독사의 자식들'은 남을 죽이는 독을 품은 자들이라는 뜻이다.
3) '진노'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반응을 가리킨다.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11]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12]

1) "열매"는 어떠한 특정 신심 행위나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전반적인 행실을 가리킨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이론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인격과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2)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심판을 뜻한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13]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14]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15]

1) 요한은 뒤에 오실 메시아를 증명하며, 자신은 그분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임을

---

10) 위, 65쪽, 각주 12 참조.
11) 로마 9,7 :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사악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2) 루카 13,7 :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13) 사도 13,24 :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14) 요한 1,15 :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사도 13,25 :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15) 이사 41,16 : 네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쓸어 가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날려 버리리라. 그러나 너는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리라.
예레 15,7 : 내가 이 땅의 성문들 앞에서 키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였다. 내가 내 백성에게서 자식들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은 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말한다.

2) 세례는 물로써 죄를 씻음이며, 불은 죄를 태워 버림 곧 정화를 상징한다.

3) 수확 때에는 좋은 곡식과 나쁜 곡식이 가려진다. 수확은 세상 종말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표상이다. 최후 심판 때에 하느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알곡 같은 의인은 당신 나라에 쭉정이 같은 죄인은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다.

세례를 받으시다(마르 1,9-11; 루카 3,21-22)

13.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섞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복음서는 예언 말씀을 상기시킨다.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이다.[16]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주실 세례가 자기의 수세(水洗)보다 우월함을 나타내듯이, 예수님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17]

15.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의로움"은 하느님 뜻에 대해 새롭고 근본적인 충실성을 가리킨다. 곧 하느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다.[18]

16.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 하늘이 열림은 땅과 하늘이 하나 됨을, 그리고 하느님의 계시를 뜻하는 표현이다.[19]

2) "비둘기" 상징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비둘기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거

16)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6쪽, 각주 22.
17) 위, 각주 24.
18) 위, 각주 25 참조.
19) 위, 각주 27.

나,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리킨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복음서의 이 비둘기는 예수님의 세례 때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를 상기시킨다.[20]

17.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21]

'마음에 든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에 든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의지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다.[22]

마태오 복음서 1장에서 3장까지에는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증거가 기록되어 있다.

1) 구약성경의 증거 : 마태오는 메시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분이시다.
2) 하느님 천사의 증거 :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증거하였다.
3) 동방박사들의 증거 :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다인의 왕이 탄생하였음을 증거하였다.
4) 별의 증거 : 동방박사들이 유다인의 왕이 탄생하셨음을 깨닫게 하였다.
5)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의 증거 : 성경에 근거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증명하였다.
6) 세례자 요한의 증거 : 메시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며, 장차 불로 심판하실 분이심을 증명하였다.
7) 하느님 음성의 증거 :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심을 음성으로 증명하셨다.

---

20) 위, 각주 28 참조.
21) 창세 22,2 :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야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22) 앞, 각주 29.